

해외에서 본 방탄소년단과 비틀스



영국의 슈퍼밴드 비틀스(사진)는 방탄소년단 이전의 '신기록 주역'으로 꼽힌다. 미국 등 해외 언론매체들은 세계적으로 각종 신기록을 써온 방탄소년단에게 "21세기 비틀스"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AP·뉴스

‘글로벌 비틀스 데이’ 54년 그후 방탄소년단이 왕위 바통터치

세계 언론들 “BTS가 비틀스 자취를 이을 것”

1967년 6월25일은 지구상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다. 영국 BBC가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 ‘아워 월드(Our World)’를 지구 5대륙 24개국에 전 세계 최초로 동시 생중계했다. 이날 무대에는 전설적인 스타들이 대거 나섰다.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와 화가 피카소, 빈 소년합창단 등이었다. 마지막 무대는 그룹 비틀스가 ‘올 유 니드 이즈 러브’(All You Need Is Love)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장식했다.

2019년 비틀스의 한 팬은 이날을 ‘글로벌 비틀스 데이’로 정해 기념하자는 제안을 내었고, 팬덤의 지지를 얻었다. 그로부터 54년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의 한 그룹이 ‘21세기 비틀스’로 불리고 있다. 아시아시피 방탄소년단(BTS)이다. 비틀스의 ‘아워 월드’ 무대는 당시 7억명이 시청했다. 방탄소년단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PTD)를 포함해 역 단위 유튜브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무려 34편이나 보유하고 있다. 수치만으로도 비틀스에 비견될 만하다.

최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글로벌 비틀스 데이’를 맞아 방탄소년단이 비틀스에 맞먹는 세계적 케이팝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TS는 영국 밴드의 상징보다 더 성장해 나갔다”라는 제목 아래 “BTS가 2013년 데뷔 이후 인상적인 이정표에 가 닿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BTS는 비틀스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주류시장에 균열을 냈다 ▲비틀스는 전 세계 수백만명의 ‘비틀매니아(Beatlemania)’라는 팬덤, BTS는 ‘아미’로 불리는 충성도 높은 팬들을 각각 성장의 원동력 삼았다”고 썼다.

특히 음악분석업체 ‘넥스트 빅 사운드’의 자료를 인용해 트위터에서 BTS의 팔로워가 비틀스를 넘어선다며 “(6월 말 현재)비틀스에 대한 언급은 2만3000여건이지만 BTS 언급 트윗은 3679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비틀스에 대한 팬들의 동경은 그룹이 해체될 지 수십년이 지나도 여전하다면서 “비틀스는 빌보드 역대 차트에서 21곡이 1위에 올라 5곡의 BTS를 크게 앞선다”고 덧붙였다. 두 그룹의 성과가 말해주듯, 매체는 “방탄소년단이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그룹인 비틀스의 자취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이 적중했을까. BTS는 6월2일 ‘버터’(Butter)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라 7주 동안 자리를 지킨 뒤 20일 자신들의 신곡 ‘PTD’로 이를 이어받았다. 이에 앞서 ‘셀프 바통 터치’의 첫 기록을 쓴 비틀스는 1964년 2월1일 ‘I Want to Hold Your Hand’로 7주간 1위를 차지했고, 그해 3월21일 ‘She Loves You’로 같은 성적을 과시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불굴의 산악인’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하산 중 실종

“돌아오라, 김홍빈!”

열 손가락 없이 히말라야 14좌 완등 브로드피크 등정한 뒤 하산하다 실종 파키스탄 군 헬기 급파 현장 수색 중 “무사히 귀환해 희망 꽃 피우자” 염원

‘열 손가락 없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57)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완등 후 하산 도중 실종됐다. 이번 원정대에는 김 대장을 비롯해 류재강 등반대장, 정우연, 정득채 대원 등 총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 등반 세프파를 고용하지 않고, 캐피텐 포터만 고용하는 등 등반상황이 좋지 않았다. 김 대장은 출발 전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보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집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즐겁고, 안전하게 살아 돌아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김 대장이 브로드피크 정상에 발자국을 찍은 것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4시58분, 한국시간으로 오후 8시58분이다. 2006년 가셔브롬 II (8035m)를 시작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봉우리 중 13개의 정상을 밟았던 그가 마지막 14좌 완등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앞서 김 대장은 2015년에도 브로드피크에 도전했으나, 7600m 지점에서 악천후를 만나 하산했다. 지난해에도 등정 준비를 마쳤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전을 미뤘다.

이번 등정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장애인으로 세계 첫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다. 국내에선 엄홍길, 박영석, 김재수, 한왕용, 김창호, 김미곤 다음으로 7번째 완등자다. 김 대장은 정상 등정에 성공한 뒤 “코로나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장애인 김홍빈도 할 수 있으니 모두들 힘 내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산 도중 해발 7900m 부근서 실종

김 대장은 하산 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종해 중국 쪽 1000~150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산악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이 19일(한국시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완등 후 하산 도중 실종됐다. 이에 외교부는 파키스탄과 중국 당국에 구조대 파견 등을 요청했다.

구분	일시	대상지	높이
1	2006년 7월22일	가셔브롬 II	8035m
2	2006년10월12일	시사파마 남서벽	8027m
3	2007년 5월16일	에베레스트	8848m
4	2008년 5월 8일	마칼루	8463m
5	2009년 5월 1일	다울라기리	8167m
6	2011년 9월23일	초오유	8021m
7	2012년 7월31일	K2	8611m
8	2013년 5월20일	칸첼장가	8586m
9	2014년10월 7일	마나슬루	8156m
10	2017년 5월19일	로체	8516m
11	2017년 7월 7일	낭가파르밧	8125m
12	2018년 5월13일	안나푸르나	8091m
13	2019년 7월 7일	가셔브롬 I봉	8068m
14	2021년 7월17일	브로드피크	8047m

김 대장은 사고 직후인 19일 오전 9시 58분쯤(현지시간) 광주시산악연맹 후배에게 직접 위성전화로 조난 사실을 알렸다. 김 대장은 “등강기 2개가 필요하다. 많이 출다”고 했다. 조난 후 약 11시간 만에 근처를 지나던 러시아 등반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접근해 로프와 등강기(고정된 줄을 타고 오르며 묶는 등반장비)를 내려 보내 끌어올렸지만, 줄이 끊겨 더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육군 헬기와 원정대 한국대원 등

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홍빈 대장은 누구?

김 대장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1983년 송원대학교 산악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산과 본격적 인연을 맺었다. 대학 2학년 때 광주·전남 암벽대회에 출전해 2위에 올랐고, 1989년 에베레스트 원정에 이어 1990년 낭가파르밧 원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를 단독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했다. 16시간에 걸친 현지 구조대의 노력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열혈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사고로 동상에 걸린 손이 7번의 수술 끝에 모두 절단해야 했다. 장애를 입은 뒤 알파인스키로 전향하기도 했다. 1999년 처음 국가대표가 돼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패럴림픽에 출전했다. 산이 전부였던 그에게 좌절은 컸고 방향의 시간은 길었다. 재기를 시작한 곳도 산이었다. 목표는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 1997년 유럽 엘부르스(5642m)를 시작으로 2009년 남극 빈슨 매

시프(4897m)까지 12년에 걸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했고, 틈틈이 히말라야에 올라 마침내 14좌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돌아오라, 김홍빈!”

‘모든 조건이 갖춰진 도전은 더 이상 도전이라 부르지 않는다. 온전한 몸으로 오르는 것과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자가 오르는 것은 다르다.’ 김 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이다.

김 대장은 도전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 “열 손가락을 옮겨줘도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전의식을 고취시켰고, “어떤 위험 속을 헤쳐나갔느냐가 중요하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극복했느냐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좌절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말에 답할 차례다.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좌절의 시대에 등불이 되어주어야 한다.

“돌아오라, 김홍빈!”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한화-키움의 예정된 자체징계…1년 전 삼성을 기억하라

거짓말·무단이탈로 팬들 분노에 기름 1년전 최충연, 자체 징계로 시즌 아웃

‘중징계’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자체 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

KBO리그를 집어삼킨 원정 호텔 술자리 파문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연루된 선수들의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야구팬들의 실망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다.

리그에 불어 닥친 악영향도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에서 나온 확진자와 다수의 밀접접촉자로 인해 2021시즌 전반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

한 채 중단됐다. 설상가상 리그 중단 후에는 추가 확진자까지 쏟아지고 있다.

원정 호텔 술자리 파문에 연루된 선수들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책임이 적지 않다. NC의 경우 실명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남 야구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팬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도중 ‘기름’이 부어졌다.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같은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들은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거짓 진술과 숙소 무단이탈 등까지 저질렀다.

한화 선수 A와 B는 당초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구단 자체 조사에 임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를 방문한 키움 선수 2명과 동선이 6분 이상 겹쳤고, 이들은 뒤늦게 부랴부랴 이 사실을 구단에 알렸다.

한화는 해당 선수 2명의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구단 관계자는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나온 뒤 구단 자체 징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의 징계는 단순히 벌금만 주어지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 역시 마찬가지다. 키움 한현희와 C는 당시 수원에 있던 원정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술자리가 벌어진 서울 강남의 호텔까지 이동했다. 이들도 한화 선수들과 같이 거짓진술을 했고, 여기에 숙소 무단이탈 행위까지 저질렀다.

울스타전 전격 취소 (KBO리그)

코로나 확산·술자리 파문 등 영향 대표팀은 23·24일 별도의 평가전

KBO리그 울스타전이 결국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됐다.

KBO는 20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실행위원회(단장회)를 열고 울스타전 개

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KBO는 “울스타 팬투표가 완료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고, 리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 선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 울스타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24일로 예정됐던 울스타전뿐 아니라 23일로 예고됐던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KBO리그 라이징 스타의 평가전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10개 구단에서 선수들을 모

아한 팀을 구성할 경우 감염 확산 위험이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울스타전은 지난해에 이어 또 열리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찌감치 울스타전 취소가 결정됐다. 올해는 정상 진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불거진 KBO리그 일부 선수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코로나19 확진에 더해 거짓진술까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된 여파도 있었다. 게다가 NC 다이노스와 KT 위즈 선수단 내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

키움 역시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구단 관계자는 “출전금지 징계가 내려지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법적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구단은 현재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KBO의 징계와 더불어 내려질 구단 자체 추가 징계의 수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1년 전 삼성 라이온즈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우완투수 최충연에게 지난해 2월 KBO 징계(50경기 출전금지+제재금 300만 원+봉사활동 80시간)에 100경기 출전금지, 제재금 600만 원의 자체 징계를 더한 바 있다. 팀의 핵심투수를 아예 ‘시즌 아웃’으로 만든 삼성의 중징계 결정은 한화와 키움이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사례다.

정재우 기자 award@donga.com

황도 여의치 않았다.

한편 KBO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23일과 24일 별도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야구대표팀이 26일 출국 이전에 3경기를 소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정이 없어진 23일과 24일 팀을 섭외해 고척스카이돔에서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5일에는 기존 계획대로 키움 히어로즈와 평가전을 정상 진행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n@donga.com